제목 : 에브리타임? 에브리다잉!

학과 : 문화콘텐츠학과
학번 : 201821777
이름 : 이유빈

<에브리타임>, 오프라인으로만 얻기 어려운 정보들을 온라인으로 얻을 수 있는 신입생과 재학생의 필수 설치 어플이다. 직관적이고 꾸미기 쉬운 시간표 앱부터, 학교 식당 메뉴들까지 대학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들로 많은 대학생의 핸드폰에서 <에브리타임>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요근래 <에브리타임>이 성불평등을 야기하고 고착화하는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대학교 정보 서비스라는 겉모습 이면엔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에브리타임>에서 온라인 성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세분화된 게시판 카테고리, 두 번째는 검증된 익명성이다. 본 글에서는 해당 요소들을 통해 어떻게 온라인상 성불평등이 구체화되고 있고, 더욱이 오프라인 대학 생활에까지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디지털 성차별에 관한 문제의식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 세분화된 게시판

에브리타임의 핵심 서비스이자 소구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시판'은 정형화된 카테고리와 학생들에 의해 생성이 가능한 인공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 에브리타임 앱 자체에서 제공하는 게시판은 자유게시판, 비밀게시판, 홍보게시판 등으로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을 하는 곳이 속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대중고나라, 아주냥이, 음악 추천 게시판 등과 같이 공적 차원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학생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사적인 카테고리가 인공 카테고리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요 에브리타임 내의 성불평등 문제는 학생들이 생성한 '페미니즘'과 '반페미니즘' 게시판에서 출발하였다. 과거 2017년~2019년 당시 양성평등과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가 대두됨에 따라 자연스레 에브리타임에 관련 게시판이 생성되었고, 이를 계기로 아주대학교 에브리타임 내부에서의 성차별 논의(라고 적었지만, 사실상 싸움에 가깝다)가 시작되었다.

그간 오프라인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고 조심스레 하던 얘기(사실 조심스럽게 할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서도)가 게시판이라는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짐과 동시에,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고 사람을 사람으로서 인정하는 기본적인 지지대 자체가 붕괴되었다. '페미니즘 게시판'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성과 남성을 이분법적인 프레임으로 재단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집단은 철저하게 소외시키며 심지어 깎아내리

는 배타적인 태도가 만연해졌다.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던 것은 이로 인해 해당 주제를 무분별하게 접하는 수용자가 '정말로 그럴법하다'는 인식이 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해당 문제는 검증된 익명성을 통해 더욱 심화된다.

- 검증된 익명성

에브리타임의 페미니즘 게시판은 게시판 주제에 알맞은 소재라는 명분으로 성불평등에 대한 그릇된 이야기를 퍼트리고 재생산하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었다. 그리고 그곳에 참여하고 행동하는 모든 주체자가 아주대학교 재학생이라는 점에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불특정다수가 활동하며 인물을 특정하기 어려운 개방형 인터넷 커뮤니티와는 달리, 에브리타임은 아주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또는 다녔던 학생만 접근이 가능한 플랫폼이다. 다시 말해 학교를 오가며 마주하고 우연히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온라인 성차별을 일삼고 있는 자일지도 모르는 불안감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폐쇄성은 재학생들로 하여금 학교라는 공간의 안정성과 신뢰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페미니즘 게시판과 반페미니즘 게시판은 지난 2019년 이후로 새글이 올라오고 있지 않지만, 그 속에서 행해지던 악습들은 자유게시판과 비밀게시판과 같은 공간으로 전이되었다. 그리고 아직도 에브리타임 속 많은 게시판에서는 성차별 발언과 여성과 남성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태도가 흔하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에브리타임을 이용하는 사용자층에서 에브리타임의 서비스를 여과해서 사용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시간표나 메뉴만 사용하고 게시판은 아예 들어가지 않거나 아예 게시판을 해제해놓는 등, 이용자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성차별을 야기하는 환경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온라인 환경에서의 성평등이 아닌 직접 활동하고 살아 움직이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성평등을 체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모든 대학 생활의 시간을 함께한다는 <에브리타임>은 일부 집단에게는 있어 매 순간 누군가를 죽이는 <에브리다잉>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동안 당신은 <에브리타임>과 <에브리다잉> 중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였는가? 그 답은 당신 속에 있을 것이다.